

# “민주주의 봄 노래” 파면 환영 축제 열린 광주

## 尹 파면

“내란의 겨울을 넘어 봄날을 열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는 파면을 반기는 광주시민 승리대회가 열렸다.

총 4부로 구성된 대회는 파면 환영에서 내란 세력 청산, 성숙한 민주주의 도약까지 파면 과정부터 파면 이후 남은 과제까지를 주제로 삼아 진행했다.

대회는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발언, 축하공연, 구호제창, 승리 응원공 굴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광장은 12·3계엄 이후 지난 121일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탄핵을 촉구하던 이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2000여 명이 참여한 대회는 축제를 방불케했다.

민주광장에는 사물놀이패가 파면을 기념하며 흥을 돋웠다. 뒤이어 ‘다시 만난 세계’ 노래가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가던 발길을 멈추고, 노래에 맞춰 손을 흔들거나 환호했다. 처음 보는 집회 참가자들도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최정호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히는 장면이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파면 촉구 팻말 대신 ‘이제는 사회대개혁·내란 청산’ 손팻말을 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들은 파면에서 나아가 권력구조 개편과 사회 전반의 성숙을 염원했다. 또 내란 동조 세력도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젊은 세대가 주고받는 편지도 이목을 끌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승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파면 넘어 사회개혁” 2000여 명 모여 축제장

## 5·18세대와 MZ의 민주주의 수호 편지 눈길

## 122일 만 겨울 가고 봄 “혼란 정국 안정되길”

었다.

무대에 오른 이근철씨는 “(5·18)주먹박을 모른다고 생각한 그들이 빛나는 응원봉과 휘날리는 깃발로 승리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에 청년인 나수하씨는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만연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광장의 동지와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시민들은 122일간의 기나긴 겨울 끝에

드디어 민주주의가 꽃핀 봄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45년만의 초유의 계엄 사태에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광주 시민들도 한시름 놓았다. 계엄 정국으로 침체된 사회가 정상화되길 희망했다.

광주시민 정모(72)씨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십년 전 광주에 계엄군이 들어닥치고 시민들이 희생된 장면들이 떠올라

무서웠다”며 “기각 시 2차 계엄까지도 걱정했었다. 그러나 오늘 선고 이후 그래도 민주주의가 견재하다는 생각이 들어 기쁘다”고 했다.

자영업자 김모(36)씨는 “긴 겨울이 가고 봄이 드디어 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희망이 보인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국가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이 실현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했다.

김효경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오늘은 민주주의 승리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나아가 앞으로는 국민 주권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권철 기자

## 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불면의 밤’ 빛난 오월 광주정신

## 무장 계엄군 맞서 맨 몸으로 국회 달려간 시민들

## 전국 각지서 한파 속 ‘나눔·연대’ 대동정신 재현

## 비폭력·질서 있는 집회 문화로 탄핵 정당성 알려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이르기까지 쉬이 잡을 수 없던 ‘불면의 밤’ 내내 광주의 오월정신은 그 빛을 발했다.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저항한 광주 5·18정신은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고 파면을 이끌어 낸 밑거름이 됐다.

윤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1시간여 만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따라 헬기를 타고 급파된 계엄군이 국회를 에워쌌다.

무장한 계엄군을 지켜본 시민들은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그날처럼 시민들은 또 한 번 민주 헌정을 지키고자 국회로 달려갔다.

맨 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는 시민들의 결연한 의지에 힘입어 국회 관계자와 보좌관들도 군의 진입을 저지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비폭력적이면서도 위헌·위법에 맞서 민주 헌정을 지키겠다는 결기 앞에 부당한 명령을 받은 계엄군들은 고개를 숙이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연일 전국 각 도시 광장에 모여 위헌적 계엄을 규탄했다.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 차례 부결되자 시민들은 더 단단하게 뭉쳐 결국 탄핵 의결을 이끌어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체포·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준엄한 민심도 꾸준히 보여졌다. 불의에 저항한 불꽃은 햇불에서 촛불로, 다시 팬클럽 응원봉으로 이어졌고 나눔·연대의 대동정신도 재현됐다.

광주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한겨울을 뚫은 날씨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손길이 확산했다.

시민들은 ‘선결제 나눔’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나누었으며, 어려운 시국일수록 서로를 보듬었다.

비폭력적이고 질서 있는 집회와 성숙한 시민의식은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알리며 파면을 이끌어내는 힘이 됐다.

광주 금남로에서 보수성향 단체의 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을 때도 광주시민들은 ‘민주화의 성지’를 지키겠다며 금남로로 뛰쳐나왔다. 자극성 발언과 도발에도 끝내 연연함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남도의 음식을 꼭 맛보고 가시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내란성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불면의 밤은 길어졌다.

탄핵 선고 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 시민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믿었다.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을 것이라 의심치 않으며 질서 정연하게 현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 111일 만인 2025년 4월4일,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 마디에 5·18민주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를 터트렸다.

불의에 맞선 시민 저항과 연대·나눔의 5·18 정신이 되살아나 그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는 이유다.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지키고자 달려간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계엄군·경찰의 모습에서 1980년 5월 광주정신이 굳건히 지켜졌던 정의를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민규 기자



4일 오전 광주 성덕고 5층 기동 AI 수업실에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던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이 ‘최정호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 헌재 결정 지켜본 광주 고교생

##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최정호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 ‘짜짜짜’

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성덕고 5층 기동 AI(인공지능) 수업실. 10시30분이 지나자 이 학교 2학년 31명의 학생이 교실 내 빈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아시야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로, 최근 오월바스를 이용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기도 했다.

앞서 군주론 등을 배웠다는 학생들은 이날 민주시민교육(계기교육)의 일환으로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참여 학생 모두가 자리에 앉자 과목 교사는 10여분간 민주주의 정의, 헌법의 의미, 비상계엄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 속 ‘헌법 1조1항과 2항을 알고 있는냐’는 교사의 질문에 한 학생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고된 11시 직전 교실 정면에 설치된 TV를 켰다.

학생들은 TV 속 결정문을 낭독하는 문형배 현재소장 권한대행을 숨죽여 지켜봤다.

잠시 뒤 ‘최정호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일부 학생은 짧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남학생 A군은 “더 이른 시일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탄핵안이 인용돼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때 많이 불안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실 밖 복도에서도 쉬는 시간을 맞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탄핵 인용 결정 소식을 나누고 있었다.

이중 한 학생은 “12·3 당시 ‘요즘 시대 비상계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날의 결정을 계기로 모든 갈등과 대립이 하루빨리 치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광주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장면을 자율 시청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도 다시 보급,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승원 기자

## 광주·전남교육감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날 현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지난 12월3일 이후 우리는 참담한 심경으로 불안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제는 일상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갈라진 마음을 잇고 서로를 보듬으며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손을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밑거름은 교육이다. 광주교육은 민주주의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한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날 판결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엄중한 가치를 새삼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염선호 기자

## 타인 주소지 악용 마약 밀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야바,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 마약 수차례에 걸쳐 밀수·투약

야바 1만 5천 정, 필로폰 620g, 케타민 37g 등 총 3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여, 24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본부세관은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현지 수사당국이 야바 2천정을 오토바이 부품에 은닉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확장 분석에 착수했다. 그 결과 작년 12월 말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 시도된 야바 10.017정, 필로폰 310g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수사를 통해 해당 화물을 수취하려던 피의자 A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였다.

수사 결과 A씨는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 B씨와 공모하여 야바와 필로폰을 과자 봉투와 영양제 봉투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핸드폰 포렌식 결과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밀수입 및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A씨는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타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있으며, 마약을 수취하기 전 주소지 주변을 2시간 이상徘徊·경계하며 살피고, 인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과 수사를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소지를 수취지로 하여 마약을 발송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주문하지 않은 택배 화물을 받은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광주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 등 불법물품 밀수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감 방침이다. /김준형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을 때까지 잡을 수 없던 ‘불면의 밤’ 광주시민들은 수없이 광장에 모여 탄핵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으나 광장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진정한 선고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윤석열정권각각되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이날까지 광주비상행동은 47차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연인원 10만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퇴진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는 20차례가 진행, 약 8만3500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동안 가두행진도 7번 열렸다.

## 122일 간 광장 모인 10만5천 시민… 숫자로 본 광주 탄핵민심

## 광주비상행동, 총궐기 20회·시민대회 21회 등 47차례 집회

## 종교·노동계 각계각층 집회에 7000명… 상경투쟁도 5000명

## 600명 시민 철야 농성, 후원 1억7000만원 등 나눔·연대

지난해 12월9일부터 13일까지 민주광장에서 열린 1차 광주시민대회는 총 4회(연인원 7000명), 올 3월1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차 시민대회는 17회(3200명) 진행했다. 천주교 시국미사와 행진,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 종교계와 노동계 각계각층의 집회에도 7000명이 참여해 위헌적 계엄 선포의 부당함과 관련자 즉각 처벌을 호소했다.

상경투쟁도 이어졌다. 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국회 앞으로 버스

26대 1000명이 시민들이 상경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탄핵을 외쳤다.

올 3월15일에도 버스 47대에 나눠 탄 1400명의 광주시민들은 광화문 앞으로 나아갔고, 남태평양과 한남동 등 각종 결의대회에도 260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3월11일부터 선고일인 4일까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대학생, 교수 등 20개 단체들은 릴레이 시국선언을 벌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천막을 치고